

2021 작금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배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만가대

만가대 어린이의 좋은 그림에 대하여

모두의삶교육실천연구소
수근현정클용김이주모

발간사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삶의 방식의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동체성을 지향하며 마을 곳곳에서 애쓰시는 많은 활동가와 실무자들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역센터로 요구되고 지향해야 할 사업을 시군 활동가들의 의견과 시군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21년 올해 주요한 사업으로 정책연구 사업을 확장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현장 전문가이자 당사자들인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찾고 대안을 제시해 보는 '작은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플랫폼, 시민자산화, 돌봄, 네트워크 진단, 생물 다양성 등 다양한 주제에 9개 연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역과 활동가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외부자의 시선, 다양한 각도에서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연구이자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제안된 대안을 사업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은연구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과 연구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센터장 신남균

우리를 탐구하는 시간,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

마을연구란 무엇일까요? 당사자들이 마을연구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기존의 연구와는 무엇이 다른지, 마을 연구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정의해 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작다는 것은 또 어떨까요. 상대적인 것인지, 절대적인 것인지 도무지 뭘지 모를 것이라고나 할까요? 작은 연구들이 완성되어 보고서가 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물음에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했으니, 올해의 작은 연구 과정은 좌충우돌의 연속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우리는 스스로를 '작은연구공동체' 라고 이름 붙여 보았습니다. 마을연구란 것이 (아직은) 뭘지 모를 것이지만, '어쨌든 마을에서 늘상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탐구하고자 하고, 그것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나름의 생각을 마을공동체에 알리는 일을 하는 (또는 관심 있는) 사람들' 이란 것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구 보고서의 수준과 목표는 일차적으로는 (해당)마을공동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제 아무리 훌륭한 결과가 나오고 외부 평가가 좋게 나온다 한들, 탐구의 대상이었던 마을공동체에 의미가 없다면 작은 연구다운 것은 아닐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을 활동가가 연구자가 되고, 연구자가 마을 활동가가 되는 자연스러운 교류와 전환의 과정을 어떤 규격의 틀에 가두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연구 문법들에 얽매이지 않는 마을 연구자의 탄생과 데뷔라는 과정을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9개의 연구 결과물들은 기술 방법도 연구 방법론도 다 제각각이 되어 버렸습디만, 대신 마을의 다이내믹함과 마을 연구자의 개성이 나타난 연구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탐구하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사자들의 마을 연구는 더 많아져야 하고, 더 쉬워져야 하고, 더 자유분방하게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마을연구가 무엇인지, 마을연구자들이 누구인지도 밝혀지겠지요. 그 과정을 중단 없이 지원해 나가야겠다는 기획자이자 담당자로서의 바람이자 다짐도 조심스럽게 담아 봅니다. 용기 있게 첫 발을 댄 마을 주민이자, 이웃이자 동료인 '작은연구자' 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정책기획팀

마을 연구자들을 위한 안내, 작은연구자들의 멘토되기

활동가/단체가 자기 활동의 연구자가 되어보는 경험은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의제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가까운 미래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 가설을 세우고 설계도를 만들어보거나 분주함에 놓쳤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거나 등등. 그게 무엇이든 직접 실천하는 분들의 경험은 다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멘토의 쓰임새는 연구주제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하는 장치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연구를 활동과 찰떡같이 연결시키는 현장 DNA 가득한 결과물을 보면서 다른 시선이 되기보다 “역시, 역시! 살아있네!”를 외치게 돼서 제 본분을 기억하려했던 순간이 더 많긴 했지만 앞으로도 작은연구지원사업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다른 위치성을 가져보는 기회제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은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는 커뮤니티적인 환경 속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누군가에게겐 직업, 누군가에게겐 사이드프로젝트 일 수 있지만 활동을 단단하게 해주는 유용한 방식·기술 중 하나입니다. 활동가/단체들에게 이번 작은연구지원사업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동 김희정

마을활동을 기록하는 작은연구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은연구의 연구자들은 앞만 보고 달음질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웠던 일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그 동안 내 아이를 키워준 마을에 감사하여, 어떤 연구자는 자녀의 학교가 있는 마을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마을을 위해 무언가 시작해보려고, 어떤 연구자는 현재의 활동에서 나아가 더 큰 꿈을 꾸기 위해 작은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 각각 다른 이유로 시작한 마을 연구이지만 연구자들은 마을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고 그들은 그 동안 이유를 묻지 않았던 일들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옆에 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은 모두 활동가들이며 그 동안의 자신의 활동을 거리두기하며 바라보고, 그 안에서의 발견과 성찰을 작은 연구에 담아냈습니다. 하지만 연구 활동은 마을활동 만큼이나 지난한 작업의 시간을 들여야 하기에 많은 수고와 안내가 필요했으며 그 여정을 열심히 걸어오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에게는 작은연구 연구자들의 마을활동과 연구활동을 함께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연구자들의 성취의 경험이 저에게도 또 다른 성취의 경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을활동의 살아있는 실체를 담아내는 작은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도와사람 연구위원 임정현

작은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나 모임을 만나면서 들었던 마음은 '참 순수하다' 입니다. 어떤 개인적 이득이나 단체의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의 마을을 위해 이렇게 한결 같이 나서고 고민하는 모습이 컨설팅을 하는 저에게도 힘을 받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예산이 그분들의 기획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사업의 특성이나 적합성을 위해 사업 진행 전 교육이 조금 필요한 듯합니다.

예산, 결과보고에도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면 좀 더 나은 사업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번기에 하는 사업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넘 힘든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한기 사업도 진행이 된다면 열심을 더 낼 수 있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적은 예산에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상연구소 지금 협동조합 이사장 정상민

지난 3개월 동안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공모한 작은연구지원사업에 자문역할로 참여하면서, 하남시 공익활동가협의회와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 교육복지분과에서 제안한 연구를 담당하였습니다.

지역의 문제를 마을공동체의 관점과 형성으로 접근하고 해결해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분들과의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남시 지역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행정의 열악한 지원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와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활동매뉴얼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하남시공익활동가협의회는 정말 눈물겨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현장 활동의 한계와 짧은 연구기간에도 한 땀 한 땀 충실한 연구과정을 거쳐 효능감 높은 결과물을 만든 과정은 어떠한 말로도 칭찬이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주시 사회적공동체협의회에서 제안하고 연구를 주도한 주록리 마을공동체 노루목향기 어르신들의 연구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풍부한 지역활동 경험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어 더욱 빛나는 마을 돌봄에 대한 연구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작은연구지원을 통해 마을현장에서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향유하는 당사자로, 마을 연구과정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역량이 발휘되길 바래 봅니다.

강동로컬랩 사업단장 류양선

배꽃이 피는 내 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만가대

만가대 어르신들의 좋은 삶에 대하여

주 연구자: 이상화. 별칭 안쫐(안나푸르나 쫐스) 모두의 삶 교육실천연구소 소장. 전환 사회를 위한 교육과 실천 활동을 하는 대안교육활동가, 연구기획과 총괄, 전체집필.

보조 연구자: 정영희. 별칭 영희정(영어식 이름표기) 오마이지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와 주민에 진심인 마을활동가. 공동취재, 부분집필. 정산을 담당.

자연과 인류가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꿈꾸며 활동하는 동지. 같은 꿈틀자유학교 학부모이자, 의정부지역 기후활동가이다. 같은 신곡2동에 거주하면서 모두의삶교육실천연구소, 의정부전환사회교육네트워크 활동과 오마이지구사회적협동조합 의정부자연에너지협동조합, 기후위기의정부비상행동에서 협동하며 일상과 활동이 상당부분 연결되어있는 환상의 복식조. 이번 연구를 통해 만가대 마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뽐뽐!

연구목적

한때 만호의 집이 있었을만큼 번성하였으나 이제는 쇠락한 자연부락 만가대 마을에 2019년 꿈틀자유학교가 건물을 지어 이사를 합니다. 초중등 9년 과정의 도시형 대안학교인만큼 마을의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위한 노력을 하다보니, 마을과 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이 보이고, 이 마을의 문제들과 어르신들의 좋은 삶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경과

2021.4

작은연구지원사업 선정

2021.5

- 5.7 연구 협약
- 5.21 대면 교육 (질적관점과 조사설계)
- 5.26 인터뷰 질문지 구성을 위한 교육 및 회의

2021.6

- 6.7 정보수집1: 지역 정보 수집을 위한 시의원 면담(안지찬 의원)
- 6.10 인터뷰1,2: 만가대 노인정 방문(노인회장, 총무 인터뷰)
- 6.23 정보수집2: 송산1동 주민센터 방문(행정지원과장 면담)

2021.7

- 7.2 인터뷰 3: 만가대(송산1동 3통) 통장 인터뷰
- 7.9 인터뷰 4,5,6: 마을회관 방문 (마을회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면담)
- 7.15 인터뷰 7,8,9,10: 용호슈퍼 1차 방문 (용호슈퍼 사장님 포함 여성 어르신 4분 면담)
- 7.16 인터뷰 11,12: 용호슈퍼 2차 방문 (남성 어르신 2분 면담)
- 7.30 인터뷰13,14: 여성 어르신1분, 자녀 그룹1

2021.8

- 8.12 중간보고회 참가
- 8.19 인터뷰 15 : 자녀그룹1
- 8.27 인터뷰 16 : 자녀그룹1
- 8.29 연구보고서 작성 회의

2021.9

- 9.3 연구보고서 작성 및 제출

2021. 10월

연구 결과 공유회 진행

연구요약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이면서 한국전쟁이후,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겨진 미국군사시설이 30여년간 주둔한 지역이기도 하다. 그중 만가대는 미군기지인 캠프 인디언과 사격장이 있던 동네이다. 한때 미군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업이 번성했을 때에는 외지인들을 포함한 거주민들이 많았으나 기지가 이전되면서 상업시설들과 주민의 수가 많이 줄어 들었다.

행정지명으로 의정부시 송산1동인 만가대는 한때 만호가 넘는 세대가 있었다는 큰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큰 종교시설과 요양원이 들어서 있고 거주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만가대는 박씨 집성촌이 있는 자연부락으로서 나고자란 원주민들이 많이 살아서 마을공동체적인 관계와 문화가 살아있는 곳이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옆마을인 성골에 있던 초중등 대안학교인 꿈틀자유학교가 2020년 5월 만가대에 터전을 짓고 이전을 하게 되는데, 이전 하고 나서 하루가 다르게 마을엔 창고와 공장, 요양원이 들어서고 동네길에 물류를 나르는 큰 트럭과 자가용이 많이 다니게 되면서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고민하던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비슷한 주의력과 보행속도를 가진 마을 어르신에게도 관심을 갖게 된다. 꿈틀자유학교의 학부모인 연구자들은 만가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곳에서 오랜 삶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시기 위해 'aging in place'의 개념을 준용하여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하였다.

조사된 결과는 다섯가지의 의제로 정리가 되었는데 ①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조성, 노인정 독립과 리모델링 ②마을 활성화 방안: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올수 있도록 주택활성화, 노인친화마을 등 방안 모색 ③주차문제, 마을길에 다니는 트럭문제 해결, 어르신들이 차길 건널 때 신호를 길게 주기 ④요양원과 창고, 각 시설들이 마을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⑤노후한 주택문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관리소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마을의 이해와 마을과 관계를 맺고 마을공동체문화에 대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의정부 #어르신 #자연부락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aginginplace
#좋은삶 #지역공동체

연구를 시작하며

만가대 마을의 특징

마을의 역사와 공간의 구성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동학

만가대 마을 어르신들의 욕구

연구 참여자의 소개
마을에 대한 기억, 현재 마을에 대한 인식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욕구

1. 어르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2.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시려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어르신들 바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자녀 및 주민 인터뷰)

어르신들이 만가대에서 좋은 삶을 꿈꾸기 위한 의제 정리

결론 및 제언

어르신들이 바라는 좋은 삶을 위한 의제

외나무 다리, 나훈아

복사꽃 능금꽃이 피는 내고향
만나면 즐거웠던 외나무 다리
그리운 내 사랑아 지금은 어디
새파란 가슴속에 간직한 꿈을
못잊을 세월 속에 날려보내리
어여쁜 눈썹달이 뜨는 내고향
돌이서 속삭이던 외나무 다리
헤어진 그날 밤 아 추억은
어디 싸늘한 별빛속에
숨은 그 님을 괴로운 세월속에
어이 잊으리

만가대 총무님이 좋아하시는 노래

연구를 시작하며

만가대 마을에서 어르신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어떻게 사시길 바라는가

꿈틀자유학교는 2003년 개교한 비인가대안학교이다. 초중 등 9년 과정으로 50여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 꿈틀자유학교는 2008년부터 십여년 간을 만가대의 이웃마을인 성골에서 살다가 2019년 만가대에 건물을 지어 이사왔다. 성골에서도 이웃과 잘 지내었는데 만가대에 와서도 이웃들과 잘 지내고 싶었다. 이사 온 만가대는 성골보다 동네가 더 커서 주민들이 더 많이 살았고, 특히 다른동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셨다. 학교가 이사온 해 가을, 김장을 해서 동네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해년마다 하고 싶었던 김장 나눔이 코로나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이웃들과 어르신들을 더욱 만나기가 어려웠다.

또한 학교가 이사올때만 하더라도, 수락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곳곳이 배밭이고 텃밭인 이 동네가 참 아름다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 창고와 공장이 똑딱 지어지고 계속 생겨난 요양원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자동차와 트럭들이 동네 골목을 다니기 시작했다. 꿈틀자유학교에는 초등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트럭과 자동차로 인한 아이들의 보행 위험에 대해 부모들의 우려가 컸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서와 시청에 알았지만 꿈틀자유학교는 비인가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교통법규를 적용할 수가 없었고, 작년말에 대안교육기관법이 통과가 되었지만 아직 관련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적용할 수가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에 대한 안전을 고민하다보니 보행속도와 반응이 느린 동네에 어르신들은 괜찮은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코로나로 이웃간의 교류도 끊어지고 그러다보니 작은 분쟁도 민원으로 해결해서 더 마을 분위기가 삭막해져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마을에 오래 사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졌다.

한동네에 두세개씩 있는 편의점이 만가대에는 단 한 개도 없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래도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결되어있는 차가 뽕뽕다니는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야한다. 버스를 타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고령자교통사고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고령자의 경우 젊은 사람보다 보행속도가 느려 위험을 알아차려도 피하기 어렵고, 일단 보행사고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다. 그래서 “고령

자의 통행이 잦은 노인복지시설 주변, 전통시장, 병원 주변에서는 안전운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교통법규로 속도제한을 한다. 궁금함이 더해지면서 마을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코로나로 인해 노인정도 문을 닫고 마을회관도 2년째 거의 닫혀있다. 사람들의 출입이 뜸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창고와 공장으로 채워지는 동네를 보며 점점 사라지는 냄새도 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꿈틀자유학교는 대안학교이고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을 하는곳인 만큼 만가대의 주민의 일원으로 동네안에서 조화롭게 지내고 동네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교육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배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대상이 어르신인가.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은 어린이와 같은 약자들에게도 이롭기도 하고, 어르신 관련 과제들은 당사자뿐만아니라 주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놓고 공유할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만가대는 의정부에 몇 개 안남은 자연부락이라 아직 공동체 문화가 동네에 남아 있기 때문에 관심과 수용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어르신과 주민을 만나며 어르신들의 좋은 삶이 이어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만가대 노인분들의 좋은 삶을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이다. 행정구역의 이름으로 송산1동중 하나의 마을인 만가대는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총558명이고 그중 65세 이상은 185명이며 남자 62명 여자 123명이다. 이중 다수는 요양원으로 인해 주소를 이전한 경우이며, 실제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30여세대정도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다.¹

어르신들에게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좋은 삶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삶의 요소가 있겠지만, 그중 우리는 공간에 대해 주목해보고자 했다. 특히 자신이 나고 자란 공간은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수 있는 ‘aging in place’는 인간의 전반적인 생애에 있어서 삶의 질을 규정하는 요소이면서도 목적이 될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다. Cantarero 등에 의하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는 현재의 건강상태, 대중교육에 대한 접근성, 주거 만족도, 근린환경 조건, 안전성, 친구관계,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재정상태, 스트레스 등 물리적, 사회적 개인적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수진·권현주·이연숙·민병아·김한호 2010 재인용) ‘aging in place’란 누구나 현재 오랫동안 거주하던 집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어한다는 개념이다. 또한 ‘aging in place’는 재택복지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심신장애자든 고령자든 모든 사람은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주택과 익숙한 지역에서 인간으로 존엄을 유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신영·김주진·최은희·김한호 2010 재인용)

만가대에도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보통의 노인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곳에서 생을 마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노인들은 오랫동안 살아온 집과 마을 지역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생활공간²에 대해 유기적인 존재로서 의미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서 의미를 많이 부여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노인돌봄에도 온마을의 커뮤니티 케어가 필요하다. 영국에서 시작된 ‘community care’는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자기 집이나 살던 지역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정책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만가대의 경우, 마을의 어르신들을 함께 공경하는 문화가 아직 살아있어서 자녀들이 함께 살거나 근거리에 살면서 부모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공공의 지원이 조금 더 된다면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커뮤니티케어의 사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주민의 구성비율이 높을수록, 공동체문화가 강할수록 지역을 조사하는 조사자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려움을 겪는다.³ 우리연구도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 인터뷰라는 형식에 대한 낯설음을 넘어서기 위해 동네를 배회하며 수시로 불쑥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앉아서 나물을 다듬고, 머리를 잘랐던 경험들이 어르신들의 대화의 물길을 터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뿐만 아니라 마을을 이용하고 소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닌 궁금해 하고 마을에 뭔가 기여하고 싶다는 태도로 받아들여져서 꿈틀자유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과 한층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연구를 진행한 우리도 만가대 마을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다.



1960년대 송산동일대 (출처: 의정부시 30년사, 1994)

² 생활공간은 독일의 지리학자 푸리엘이 처음 사용하였다. 현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일상어로서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일상생활이 영위되고 있는 환경의 행동영역을 가리키는 말로 종종 쓰이고 있다. 독일의 지리학자 쾰레빈은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과 그 사람이 놓여있는 환경의 여러조건의 교호작용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보지만, 사람과 환경의 조건들은 제멋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사람의 행동은 그때그때 규정하는 역동적 시스템 전체를 생활공간이라 부르고, 행동의 범칙의 소재를 거기서 찾았다. (김한수 2010)

³ 연구 초기에 안지천시의원이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본인이 의정부 토박이라 만가대에 대한 역사를 들려주었고 특히 만가대 어르신 인터뷰 설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만가대 마을의 특징

마을의 역사와 공간의 구성

송산리와 만가대

만가대는 집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원래는 집을 더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많이 들어섰다고 하여 만가대(滿家岱)였는데 지금은 만자가 바뀌어 만가대가(萬家岱) 되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양주목 호구장 교지>에 의하면 박씨 일가가 누대에 걸쳐 살고 있어 조선시대에는 이곳이 둔야1리였음을 알 수 있다.

마을 원주민분들에게 만가대 자랑을 해달라고 하면 입을 모아 '공기 좋고 인심 좋아 살기 좋은 곳' 이라 하신다. 특히 만가대를 포함한 송산 일대는 배농사로 유명한데, 송산배는 삼한시대부터 문헌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리 나라 배 재배역사는 그 이전부터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에는 재배를 장려하였고, 조선말엽 맛으로 유명한 '청실배'가 양주지방에 많이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토심이 깊은 중앙천 주변인 현재의 의정부시로 추정되고 있다.

만가대 남쪽으로 수락산(물수에 즐거운 락자)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그 앞을 계곡과 개울이 지난다. 예로부터 물이 많고 좋은 산이었다. 5-6년 전까지만 해도 수락산 계곡 주변에서 물놀이를 했다는 동네분들이 많다. 1998년에는 의정부 지역에 큰 홍수가 났는데 그때 수락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수해를 입게되어 이후 사방댐과 야계 사방댐을 각 1개씩 만들었다고 한다.

만가대는 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드넓은 벌판과 만가가 있는 마을로서 동쪽으로는 배가 많이 나서 배+벌판 = 빼빼과 검은돌 마을이 있고, 서쪽으로는 성골 마을, 배+고개= 뱃고개가 있다.

한때는 의정부 송산- 남양주 퇴계원 사이 가장 큰 마을이었던 만가대는 성골과 이웃하고 있으며 마을 건너편에는 탑석 마을, 용현 마을이 있다. 마을 중간에 자동차전용도로가 생기고, 마을 건너편이 아파트단지로 개발되기 전까지는 위 자연부락들중 만가대가 가장 중심지였다고 한다. 도로로 보면 남양주 별내방향, 민락방향, 시내방향, 서울방향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⁴

현재의 마을은 만가대 사거리에서 출발하여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가 원래 마을 도로라 할 수 있는 마을회관- 용호슈퍼-수락산 라인 (중간 부분) 두 번째는 마을회관- 호산나교회-꿈틀자유학교 라인 (왼쪽부분) 세 번째는 만가대 사거리- 부대정문-원불교- 수락사 라인 (오른쪽부분)이다.

만가대는 지금도 배농사를 많이 짓지만 80년대까지 만가대에는 꽃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IMF 즈음엔 많은 화훼농가가 폐업을 하거나 양주로 옮겨갔다.

미군기지와 마을

한국전쟁이 끝난 50년대 중후반부터 의정부시에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만가대 마을에는 캠프 인디언이라는 미2사단 44공병대와 미군 사격장(미군 제2사단 포사령부)이 자리하고 옆마을 빼빼에는 캠프스탠리가 들어선다.

비옥한 농토에 배농사와 논농사를 지으며 왓자지껄 살았던 마을에 미군부대가 들어오게 되고, 부대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이 주변에 모여들었다. 미군 부대 시설 관리와 각종 공사를 포함해 미군을 상대로한 접대부들도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접대부들에게 방을 임대하는 일이나, 식사와 세탁물을 해결해주는 일 등을 하기도 하였다. 그분들중 몇 분은 아직도 마을에서 살고 계신다고 한다. 만가대와 성골에 걸쳐 있는 미군 사격장은 부대가 사격훈련을 할 때 방문하는 형태였는데 60년대 후반에는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사격이 이루어졌다.

만가대와 성골의 주민들 중 남자어른들은 탄피를 줍고, 여자들은 호미와 강통을 들고 납탄을 주워 팔았다고 하는데, 세조각으로 부서지는 어깨포탄의 앞부분은 무쇠여서 집집마다 종으로 쓰고, 뒷날개는 주석이 붙어있어 두어개 모으면 쌀 한말값을 받을수도 있을만큼 값이 나가고, 몸통은 무겁기만하고 값이 싸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달걀탄이 날아오는데 껍데기 하나에 10원이라 불발탄을 주워 터뜨려야했기에 폭발사고도 발생하여 사격장을 지키는 한국인 경비인력이 별도로 있었고, 사고 이후 미군은 주변 밭도 다 사들여 철조망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사격장으로 인해 수락산에는 2~3년에 한번씩 큰 산불이 나기도 했다.⁵

4 만가대를 포함한 의정부시의 송산동의 경제구조는 한국전쟁 전에는 90%의 주민이 1차 산업에 종사하였으나, 미군기지가 들어온 이후인 1967년에는 1차 산업 종사자는 13%에 불과하였고, 3차 서비스 산업 종사자가 80%에 달하게 된다. (의정부시 30년사)

5 김중만, 사격장이야들 2010

캠핑인디언은 1993년 철수하게 되는데 이 터가 국방부 소유 공터로 오랜시간 남아있다가 여러 공용부지로서의 계획을 포기하고 민간에 분양되었다고 한다.

1989년 호원동에 있던 306 보충대가 마을 인근 뱃고개와 성골 사이로 이전해와서 2014년 12월 해체될 때까지 매주 화요일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신병들이 이 곳을 거쳐가게 되고, 의정부역과 용현동 일대 뱃고개까지 이들을 상대하는 상권이 형성되었다.

점점 작아지는 마을

1980년 후반 의정부시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서 만가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일부 해제되었고, 이 때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이 1차 마을을 떠나게 된다. 또한 1998년 전후 국도 3호선 평화로를 우회할 수 있는 신평화로 건설이 시작되는데 만가대를 지나는 의정부 장암동에서 언천까지 이어지는 노선이었고, 그 중 장암-회천간 구간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된다. 이 도로로 인해 만가대는 마을이 갈라지는 형국이 된다. 전체 구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130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장암-만가대 구간에 대한 보상이 2000년에 완료되게 되면서 또 한차례 많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게 된다. 2007년에는 만가대 사거리 용

현터널을 포함한 신평화로 장암-자곡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마을은 완전히 다른 동네로 나뉘었고, 만가대 중심지는 섬처럼 고립 형태가 되고 말았다.

땅값은 계속 오르지만 개발은 되지 않는 동네

2001년에는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지역으로 지정되고, 2006년에는 경기도에서 만가대 일부를 그린벨트 해제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가결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해제되지 않아 건축시 8미터 고도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도시개발계획은 진행되지 못하였고, 개인간의 거래만 이루어졌는데, 거래가격의 차이가 심했고, 이 또한 주민들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었다. 신평화로 자동차 전용 도로건설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으로 땅이 강제 수용된 원주민들은 땅을 팔고 이사를 가야했으니, 대부분 송산1동, 2동, 3동 부근의 아파트 단지 등 의정부시를 떠나지않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또한 많은 주민들이 고령의 나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지역에서 뿌리내리기 보다는 주로 만가대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만가대 노인회 임원진중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라고 한다.



원래의 만가대, 길이나면서 동네가 잘림

6 1998-2010년 이문종 의원 (1949년생, 3, 4, 5대 시의원, 중고교 교사, 5대 전반기 부의장, 의정부시 에형회 이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위원, 도시계획위원 등) 2010년~2014년 이문정 의원 (1972년생, 6대 시의원, 2012년, 2013년 의정부YMCA의정지킴이단 선정 베스트의원, 인권연계에 지쳐 출마를 포기했다고 함)

만가대는 2017년이 돼서야 주민 659명의 민원 제기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의정부시와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합의하는 등 장기적인 도시계획없이 20여년을 방치되었다.

♣ **마을 개요**

행정구역: 송산1동 3통(용현동)
 통장: 박광섭 75세
 인구: 558명(남 272명, 여 286명)
 65세 이상 노인인구: 185명(남 62명, 여 286명)

♣ **현재 기관 및 시설**

- ① 마을 기관: 마을회관(마을회장, 총무,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등), 의정부농협 만가대영농회(영농회장, 가구별 가입)
- ② 교육기관: 공립용현어린이집, 애플트리어린이집
- ③ 상업시설: 용호슈퍼(카드거래 X), 주희미용실 (1인 미용실, 50년 역사)
- ④ 종교시설: 호산나교회(2002년 현재 위치 이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용현교회, 사랑의교회, 원불교 의정부 교당, 대한불교 수락사
- ⑤ 노인요양시설: 의정부행복한요양원, 의정부소망노인요양원, 노블레스요양원, 광림요양원, 명품요양원, 의정부행복한주야간보호센터

♣ **마을활동(현재는 코로나19로 대부분 중단)**

- ① 노인정: 매달 5일 계모임, 회원들이 점심식사도 함께 함
- ② 부녀회: 척사대회 등 마을행사시 먹거리 담당, 불우이웃 반찬 봉사(삼계탕, 김치, 고추장 등), 장학금 지급, 꽃심기, 주 1회 도로청소 등 봉사활동

마을주민의 구성과 동학

마을주민은 대대로 살아 온 원주민, 이주해온 이주민, 공장 및 창고, 요양원, 대안학교, 교회 등 시설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인이 있다. 어르신들의 상당수는 거의 원주민으로 구성 되어 있다.

원주민들을 보면 만가대가 밀양박씨 집성촌이었으니 박씨 종중땅이 많았지만 상당부분 매도하였고, 수락산 아래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는 주민이 매입해서 농장등으로 운영했다가 원불교 교단에 기부하였다. 그 곳은 현재 퍼머컬처공동체 수락텃밭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되어 건물 신축은커녕, 화장실 개보수 공사도 어려웠던 지역이었으나 일

부분씩 해제되면서 40년전 최초의 단층 양옥집이 지어졌고, 줄줄이 주민들이 새집을 짓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개인 소유 4층 건물도 지어져 준공을 앞두고 있다.

마을출신 정치인도 있다. 만가대 주민중 시의원이 2명이 선출되었는데⁶, 두 의원은 모두 비교적 최근에 만가대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농사를 짓는 마을이니만큼 공동체문화가 발달되었는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를 때에는 거의 모든 마을사람이 참여하여 장례 준비부터 매장 후 마무리까지를 품앗이 하였다고 한다. 농한기이자 새해 농사를 준비해야할 정월 대보름 즈음이면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비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는데 주로 수락산 시산제, 대보름 척사대회 등이었고 척사대회는 코로나19 직전인 2018년도까지 진행되었다.

1988년 전후 대규모 택지개발과 98년 전후 신평화로 도로 건설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토지가 강제수용되면서 마을을 떠나게 된 분들과, 2000년대 초반부터 몇 차례 규제 해제 조치 이후 땅값은 치솟았으나 8미터 고도제한 등 개발은 여전히 제한되면서 주민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토지는 개인간의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주민 간 희비의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공동체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그리워 하고 있는 곳이다.

코로나로 노인회 및 마을행사가 전면 중단이 되고, 길로 나뉘어진 3구역에 따라 삼삼오오 왕래를 하고 지내고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시고 창고, 공장, 요양원의 시설이 3-4년 사이로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마을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다.

코로나19로 공식적인 마을행사와 교류가 거의 중단이 되고 코로나로 인해 생긴 작은 마을 갈등들이 마을의 관계를 해칠까봐 걱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해결하기위해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의 마을잔치가 부활이 되어 다시 활력을 갖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

만가대 마을 어르신들의 욕구

연구참여자 소개

연구에 참여하신 그룹은 어르신 그룹과 자녀 및 주민그룹이다. 어르신은 노인회관과 마을회관, 용호슈퍼에 자주 오시는 어르신들을 인터뷰 하였으며, 마을에 살고 살고 계신 자녀분들과 주민분들을 2-3회 정도 인터뷰 하였다.

A 어르신

74세. 할아버지적부터 살던 마을이고 만가대에서 나고 자라셨다.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직을 하셨던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일가를 이루고 만가대 근처에 사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만가대에 있는 부모님집에서 살고 있다. 퇴직 후 지역사회와 마을에서 노인협의회, 노인정등 왕성한 활동과 함께 직분을 맡고 있다.

B 어르신

82세. 전쟁때 피난 오셨고 농사가 주업이었다. 미군부대에서 영사관을 맡아서 일하고, 청소용역회사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버셨다. 자식이 5명을 다 대학을 보낸 것이 자랑스럽고 공부를 하고 싶은 자신을 대신해 박사자식이 있는 것을 뿌듯해 하셨다. 용현동에 농사짓던 너른 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싸게 팔고나서 더 이상 농사는 짓지 않았다. 가능동에 사시지만 만가대에 여전히 애정이 많고 만가대노인회에서 총무를 보고 있다.

C 어르신

65세. 마을에 이사온지는 30년정도 되었고. 코로나로 거의 마을 행사와 활동은 못하지만 부녀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주 1회 동네청소와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마을을 대표하여 열심히 하고 있다.

D 어르신

74세. 마을 토박이이며 수락산 근처에 문중의 땅이 있는 박씨 집성촌의 자손이다. 동네에서 마을 회장 및 통장의 직분을 맡고 계시며 꿈틀자유학교 옆집에 살고 계신다.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아내와 함께 매일 등산을 하고 소식, 텃밭을 하신다.

E 어르신

1980년에 가게를 인수해서 열었다. 젊어서는 마을 잔치 할 때 잔치국수나 떡국을 끓여 어르신들을 대접할만큼 손이 컸다.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주류와 도토리묵, 나물무침등도 팔고 요양원 사람들이나 동네를 떠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사간다.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서 야채를 다듬어 농산물을 증개하거나 소매로 팔고, 고추장, 된장등을 담궈서 팔고 있다.

F 어르신

전라남도 남원에서 50여년전에 만가대로 시집을 왔다. 초가집에서 살다가 만가대에서 제일 먼저 단층양옥집을 지었

연구참여자의 생애요약

	사례	성별	연령	가구형태	이주여부	거주기간	현거주지	건강상태
1	A 어르신	남	74	자가/부부	토박이	73	만가대	양호
2	B 어르신	남	82	자가/부부	토박이	60	가능동	노환
3	C 어르신	녀	68	전세/사별+자녀	이주민	30	만가대	건강
4	D 어르신	남	74	자가/부부	토박이	50	만가대	건강
5	E 어르신	여	83	자가/부부	토박이	40	만가대	노환
6	F 어르신	여	76	자가/부부	이주민	60	만가대	양호
7	G 어르신	여	73	자가/부부	이주민	53	만가대	양호
8	H 어르신	남	74	자가/독거	토박이	73	만가대	불편
9	I 어르신	남	75	전세/부부+자녀	이주민	3	만가대	건강
10	J 어르신	여	67	자가/부부+손주	이주민	50	만가대	건강
11	K 어르신	여	68	전세/부부	이주민	44	만가대	양호
12	L 자녀그룹	남	63	자가/미혼	토박이	63	만가대	
13	M 자녀그룹	남	53	자가/부부+자녀	토박이	52	용현동	
14	N 자녀그룹	여	64	자가/부부+자녀	토박이	63	만가대	
15	O 이주민	여	51	부부+자녀	이주민	10	만가대	
16	P 시설이용자	남	40	부부+자녀	시설이용인	3	용현동	

다고 한다 (40년전). 집 관리가 어려워서 남편분 돌아가시면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싶다고 하셨다. 58년전 물난리(64년 대홍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초가였던 집에 촛불로 불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한다.

G 어르신

26년전 신경을 써서 지은 빨간벽돌집. 두 노인네가 살기엔 집이 크지만, 아이들이 가끔 놀러오고, 피아노 등 자녀들 집을 보관하기 때문에 세를 주기는 어렵다고 한다. 용호슈퍼에서 제일 많은 일을 하신다. 배우자이신 분은 연세도 많이 드시고 월남전 참전 후 건강이 안좋아서서 요양원에 계시다고 한다.

H 어르신

74세. 마을 토박이고 일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의정부교도소와 미군부대에서 일을 했고, 용현동에 아파트가 지어질 때 건설현장에도 있었다. 자녀들은 결혼하여 출가하였고 5년 전에 사별을 하고 현재에는 혼자 산다. 이동이 어려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며 도우미가 일주일에 두 번 온다.

I 어르신

75세. 이주한 어르신. 큰 아들의 공장이 만가대에 있고 사업이 확장세에 있을 때 전재산을 아들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업이 망하고 가세가 기울었다고 한다. 연세가 있지만 일을 하고 싶어하시고 동네에서 할수 있는 일을 찾아다니신다.

J 어르신

67세. 17살에 부모와 함께 만가대에 들어왔다. 언니에게 미용기술을 배워서 동네에서 50년 가까이 미용실을 운영해왔다. 미군부대가 있었을 때가 가장 호황이었고, 현재의 손님들도 동네분들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단골들이 찾아와서 머리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동네입구에 있던 미장원 자리에 새로 4층짜리 건물을 짓고 1층에서 미용실 영업을 하고 계신다. 고도제한이 있는 만가대에서 개인건물로 4층 높이를 지은건 만가대 최초라고 자부심이 강하시다.

K 어르신

나이 불명이나 젊은 축에 속하는 편(60대 중후반). 44년전 이사 오심. 텃밭에 깻잎, 가지, 호박 고구마를 심어서 소량으로 팔고 있다. 늘 동네 인심이 좋다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신다.

L 자녀그룹 1

58년생. 어려서부터 총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 마을의 역사에 대해 해박하고 어르신을 포함한 마을에 애향심도 높고 마을일의 대소사를 살핀다. 전 통장의 역임을 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통장을 그만두었다. 현재 농협 영농회일을 맡고 있다.

M 자녀그룹 2

70년생. 만가대에서 나고 자랐다. 마을에 살고 있으며 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마을 막내의 역할을 하며 마을행사나 마을일을 살피고 있다.

N 자녀그룹 3

56년생. 만가대에서 나고 자랐다. 어르신들과 소통이 잘되어 10여년전에 통장을 연속으로 두 번 역임하시고, 부녀회장, 현재 노인정 부대표를 맡고 있다. 통장재직시절 마을을 살피고 마을 사람들간에 관계가 잘 풀리도록 한 일들에 대한 자부심과 마을일을 맡으면 반드시 해결한다는 일에만 한 자신감이 있다.

O 이주민

51세. 꿈틀자유학교가 성골에 있을 때, 만가대로 이사왔다. 용호슈퍼 옆집. 이사온지는 11년 정도 되었다. 의정부시내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동네활동에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하고, 마을의 발전과 동네 어르신들에 대해 관심이 많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줘서 동네주민들이 그리 고운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P 시설 이용자

꿈틀자유학교의 학부모. 2018년 만가대에 땅을 사고 학교를 공사할 때부터 지금까지 주민과 교류가 있으며 마을 사정을 나름 알고 있고, 학교에 대한 민원으로 이웃과 대화하고 있는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에 대한 기억, 현재 마을에 대한 인식

처음 인터뷰를 할 때에는 마을의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다. 공기 좋고 인심 좋고, 아직도 동네 경조사가 있으면 서로 챙긴다고 하셨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만나면서 마을의 깊은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내어 주셨다.

1. 우리마을은 좋은 마을

사람이 많은 것에 대한 그리움

동네에서 나고자란 사람들에게 만가대에 대해 알려달라고 물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는 만호의 세대가 있었던 큰 동네였어요'로부터 시작한다. 둘러보면 사방이 산이고, 길은 8차선 도로에 고립되어 있던 이 동네에 만호가 어떻게 있을까 싶지만, 옛지도를 복원하면 꽤 규모 있는 동네가 나온다.

제일시장에 가려고 국민은행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몰라도 만가대 사람들은 꼭 만났어요. 시내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면 열에 아홉은 만가대쪽으로 걸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달을 기대려도 못 만나. 그만큼 인구가 적어졌다는 거지. ◆자녀그룹 K

지금 마을 회관 옆자리에 생필품을 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는 공판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식료품, 옷, 신발, 농산품 같은 것을 팔았고, 마을금고도 있었지. 그런데 운영을 좀 아는 사람끼리 해서 비리가 있었나봐. 그래서 금고는 지금 용현동에 있는 새마을금고로 통합이 되고 공판장은 없어졌지. ◆어르신 D

지금이야 장례를 병원에서 지내지만, 예전에는 집에서 지냈잖아. 보통 상여는 상여꾼 12명이 매는 게 아니라 우리동네는 24명이 땀어요. 그럼 12명이 소리를 하는 것보다 더 우렁차고 멀리까지 들리지. 보통 12명이 매지 24명이 매는 동네는 거의 없어요. ◆자녀그룹 K

만가대는 박씨 성씨가 집성촌인 자연부락이다.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상업위락시설들이 있었고, 의정부교도소가 지어지고 시설이 확충되면서 이주 해온 사람들이 한때는 많았었다. 그러나 88년 용현동 아파트개발과 캠프 스텐리와 인디언 부대의 평택이전은 마을경제의 타격과 마을 주민이 감소된 원인이 된다. 또한 1990년부터 시작된 의정부-연천 도로공사(신평화로)로 인해 마을 안쪽길이 8차선도로로 편입이 되면서 만가대의 1/3정도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일부는 마을 더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용현동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면서 만가대의 면적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중심지로서의 영향력에 대한 그리움

농촌에서 농민들이 농사일이나 길쌈 등을 협력하여 함께 하기 위해 마을 단위로 만든 공동노동조직인 두레가 있다. 두레는 보통 농악대와 겹했는데 마을과 두레를 대표하는 농기는 중요한 상징물이었다. 모내기와 벼베기를 할 때 두레로 일을 했는데, 일이 끝나면 동네 깃발을 들고 만가대로 모여서 한판을 거나하게 놀았다.

모내고 벼베고 할 때 두레를 하면 농자천하지대본 깃발을 들고 같이 어울려서 회관앞에와 술먹고 그날 일 끝내고 술먹고. 빼빼에서도 여기로 오고 오고, 탐석, 성골 모두 여기로와서 같이 놀았어요. 이쪽인근에서는 만가대가 중심이었지. ◆자녀그룹 K

7 마을마다 농기를 상징의 중요시했는데, 과거에는 각 농기마다 정해진 서열이 있었다. 그 서열은 마을에 양반이 있느냐, 나이가 많은 이가 있느냐, 말 잘하는 이가 있느냐, 줄다리기에서 이겼느냐, 두레싸움에서 이겼느냐는 등에 따라 정해졌다.



대소사는 마을에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

기쁜일도 슬픈일도 함께 했던 마을

: 마을 행사와 장례

마을행사는 이웃간에 사이가 안좋더라도 모두 참여했고, 이 행사를 통해 화해를 했던 소통과 화합의 장이었다. 1980년 초반까지 마을에는 상여집이 있었고, 그 때까지 마을 분들의 장례는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했다. 인원이 많은 덕인지 상여 규모가 일반적인 크기에 두배나 되어, 상여를 매는 분들이 24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앞에서 상여소리를 선소리로 매기면 24명의 장정이 합창으로 받으면서 웅장한 화음을 연출했다고 자랑한다. 부음이 전해지면 제일 먼저 동네 부녀회에서 수의를 짓고, 상여를 꾸미는 일도 품앗이도 다 함께 하는 정겨운 마을이었다. 평상시 품앗이에 소홀했던 사람들도 막상 상을 당하고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주가 직접 동네를 돌며 '앞으로는 마을일을 잘 참여하겠다' 약속하며 상여꾼을 모집했다고 한다. ◆어르신 J

정월 대보름에 청년회랑 부녀회랑 준비해서 척사대회를 했어. 동네사람들이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고기도 구워서 술도 같이 먹고, 상품도 푸짐해서 아주 재미졌지. ◆어르신A

수락산은 물수자에 즐거울 락자를 써서 수락산인데, 집집마다 쌀을 걸어서 떡을 하고 수락산에서 산신제를 지냈어요. 산신제가 없어진건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야. 625이후에도 마을에서 산신제는 한동안 지냈던거 같은데 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언젠가부터 안하더라고. ◆어르신 B

모두가 논의하고 평등했던 마을총회

주로 마을에 일어날 일들이라던가 계획 이라던가. 이런거 있을 때 마을회관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투표해서 결정했어. 마을 청소라던가. 마을에 어떻게 길이 난다던가. ◆자녀그룹 M

옛날 일이지만 예전에 7-80년대에 만가대 마을에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 있고 나쁘게 말하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는, 우리마을에 그런 어른이 계셨어. 그 어른이 계셨을 때 마을 청소에 만나오면 나올때까지 마을회관 스피커로 계속 이름을 부르며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 만나올수가 없었지. 양씨씨들도 마을 회의에 참여했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마을 청소는 웬만하면 다같이 했는데,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나서는 하기가 어렵지. ◆어르신 B

미군기지가 있는 마을은 군인들을 상대로 하는 상업활동하면서 마을안 관계가 형성이 된다. 송산1동은 전형적인 농촌마을이었는데 캠프스텐리가 있는 빼빼은 큰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었고 인디언 부대와 사격장이 있는 만가대 마을은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유흥업소가 작은규모로 있었다.

이사가셔도 언제든지 오세요

: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을 문화

매월 5일은 노인정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날이다. 식사의 준비는 마을부녀회에서 준비를 하며 평균 20여분이 식사를 하러 오신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동네로 이사가간 어르신들에게도 오시라고 해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코로나 전까지는 매월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중단 되었다.



또한 봄과 가을에는 관광버스 두 대를 빌려서 가까운 근교로 놀러 갔다. 이때에도 역시 동네분들과 이사 간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 했으며 주민들도 함께 나섰다고 한다. 당일로 다녀올수 있는 강화, 속조, 주문진, 서천 등을 다녀왔으며, 다녀오면 마을의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2. 우리마을은 발전하기 어렵다

이미 다 결정 나버렸어, 이제는 뭘 해도 안돼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리려면 우리동네가 어떻게 변화가 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미 다 결정이 났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가대는 발전의 가망이 없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다.

1999년에 연천에 가는 도로가 나면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가 없어져 버렸어. 그랬더니 이놈들이 성골로 통해서 굴다리밑으로 다니라는거야. 그래서 동네사람들이 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막 그랬어. 그랬더니 길을 새로 내기는 했는데 또 엉망으로 해놨어. ◆어르신 D

어떻게 바뀌어. 뭘소리를 해야지 여기 창고들 작년, 올해 다지었는데. 주택이나 있어야 사람도 있고 뭐도 생기고 그렇지 이젠 틀렸어. ◆어르신 G

여기 들어올 것도 더 없어. 이미 들어올건 다 들어왔어. 사방이 다 창고야. 기존에 있던 집들은 너무 낡았잖아. 그러니깐 창고밖에 지을게 없지. 길도 나 나버리고. 뭘 어떻게 해. ◆어르신 F

만가대로 들어오는 길은 두 군데가 있다. 걸어서 오는 경우에는 8차선 도로를 3번을 건너야 하며, 차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두 군데 모두 들어오는 길을 찾기가 어렵다. 어느쪽에서 오더라도 초행자는 입구를 눈앞에 두고 들어갈수가 없어서 2키로 정도 가서 유턴을 여러번 하게 된다.

인디언 부대에 학교짓고 공원도 짓는다더니, 땅을 다 잘라서 민간한테 팔아버렸어. ◆어르신 H

그러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건설이었다. 우후죽순 생긴 시설, 건물들을 싹 밀어내고 동네를 새로 만들어서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건설밖에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옛날처럼 사람이 많이사는 만호가 건설이 되려면 아파트밖에 없어. 보충대 자리도 아파트가 들어선다니까 여기도 언젠가 들어오겠지, 그런데 부대자리도 다 개인한테 팔아서 아마 요양원이나 창고가 더 많이 생길거야. ◆어르신 B

이젠 외지인들이 더 많아

언젠가 이사갈 사람들이 마을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외지인들에 대한 경계와 터부시는 전통적인 공동체 마을의 특징이다. 나고 자라지 않는 이상 원주민으로 잘 끼여지 않는다고 이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나 원주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군사보호지역과 그린벨트로 고도제한과 신축건물을 지을 수 없게 마을의 개발이 제한이 되다가 미군이 떠나고, 용현



초행자들은 들어오기 힘든 마을 입구. 차량사고도 많이 난다

동에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용현동에서 농사를 짓던 분들은 땅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

곳당이 들어온지도 얼마 안되었어. 외지인들이 들어 오기 시작한게. 그린벨트니깐 땅은 좋고 다른데보다 싸니깐 땅이 나오면 돈있는 외지인들이 막 사는거지.

◆어르신 F

개발이 풀리면서 한 20년전부터 땅팔고 나가기 시작했지. 아파트 생기면서 땅값도 오르고. 누구는 900에 팔고 누구는 1200에 팔고 ○○은 진짜 많이 받았어. 정보에 밝아야 하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어. ◆어르신 F

사람들은 땅을 팔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자기땅에 대한 가치는 더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네에 매물이 여러개 나와있을 경우, 가격의 차이는 동네사람들끼리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 세금 때문에 땅을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다.

집세는 17만원나왔는데 토지 재산세가 많이 나와 한 300정도 나왔어. 일년에 두 번 그러니깐 땅을 팔지 않으면 공장을 지어서 세라도 받는거지. 버는게 없으면 땅을 가지고 있을수가 없어. ◆어르신 G

이주민이 더 많아져서 마을의 일을 추진하는게 힘이 든다. 다른 지역 같으면 당연하겠지만, 공동체 마을 문화가 있는 동네에서는 이주민들은 언젠가 이사를 가고 마을일에 관심이 없고 잘 모른다는 생각하고 거절 되었을 때 서운함이 더 크다.

주민들한테 뭐 동의받으러 가면, 왜 전화 안하고 왔냐고 난리쳐서 이젠 그것도 힘들어. 그냥 알아서 해야하거나 할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지. ◆어르신 D

자꾸만 늘어나는 창고들 때문에

동네서 사진도 찍기 싫어

세금문제도 해결하고 소득도 올릴 겸 땅이 있는 분들은 활용하는 방법으로 창고를 지어서 공장에게 세를 주거나 물류창고로 임대를 하고 수입이 꽤 좋다. 나중에 개발로 보상을 받을때도 건물분과 토지분을 배상받는다. 그러니 창고가 들어서는 것은 싫지만, 동네사람이 지은 창고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의견을 말할수도 없는 것도 마을 사람들의 속앓이중 하나이다. 그래서 마을 분들에게는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외지인에게는 심리적 연결이 적으므로 불만을 드러낸다.

가정집은 가정집끼리 모아놓고, 저런거는 산밭이나 어디에 있어야하는데 왜 허가를 내주냐고. 그게 잘못된거지. 꿈뜰학교도 불편하지. 동네 한가운데는 아니지만 그 옆에 살면 불편하겠지. 근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가보다 했는데 꿈뜰학교 들어오면서 양로원이 네 개 다섯 개 생기니깐. 뭐 우리는 이런거 생길거라고 생각도 안하고 살았어. ◆어르신 G

사유재산은 보호되는게 맞지만 동네 한가운데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원주민들에게는 사는 사람들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을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이용할 뿐이며 마을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도 마을의 발전을 위한 고민도 하지 않는다.

또한 외지인들의 대형 차량들이 마을입구 대로에 양쪽으로 주차되면서 주민들의 안전과 대형차량 주변의 우범화가 우려된다. 실제 주민들은 이 불법주차 차량들을 해결해달라고 서명을 받아 시청에 전달한 상태이다.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욕구

1. 어르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하루의 일상을 여쭙봤지만 ‘똑같지 뭐’, ‘별일 없어’ 라고 말하시고 개인적인 일상이야기는 안하시려고 했다. 한주간의 특별한 일정은 병원을 가거나, 주민센터, 복지관 등 가는 곳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고, 하루의 일상은 집안일 외에 집앞 청소, 텃밭농사, 용호슈퍼에 가는 것이었다. 코로나로 노인정을 폐쇄하라는 공문으로 노인정은 폐쇄되었는데, 텃밭이나 용호슈퍼는 언제나 드나들 수 있는 열린공간이었다.

노인정에 가지 노인들은 집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운동이에요.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어디 오라는데도 없고. 새로운곳에 외출 준비하고 이렇게 나서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활력이 되잖아. ◆어르신 A

쉬엄쉬엄 일도 하고 용돈도 벌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텃밭을 하신다. 규모가 제법 큰 100평 이상 밭을 하는 분도 계시고 소규모 텃밭을 하시는 분도 계셨다. 작은 텃밭에서 나온 농작물은 용호슈퍼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인근 등산객과 요양원에 오는 요양보호사들을 주 고객으로 팔고 주문생산을 하기도 했다. 용호슈퍼에서 한번이라도 싱싱한 농산물이나 장류를 사간 사람은 단골이 된다.

다음 주에 파리고추 살수 있어요? 다음 주에 제사인데 꼭 필요해서. / 어제 산 가지 너무 맛있더라고, 있으면 또 살수 있어요? / 깻잎도 여기께 좋아요. 약도 거의 안치고, 고추장, 된장 여기서만 먹는다니깐. ◆용호슈퍼 손님들

용호슈퍼는 슈퍼 주변 동네 할머니들의 소규모 작목반의 역할을 한다. 고구마줄기, 깻잎, 나물 등 손으로 다듬어야 하는 야채들을 함께 다듬고 수익을 나눈다.

한번은 내가 간만에 우리집 대청소를 했는데 쓰레기를 가 많이 나와서 다음날 청소차 오기전에 놔둬야 해서 집앞에 놔뒀더니 동네 할머니들이 난리난거야. 차한테 드나드는 골목이라 그런지 나는 우리집 앞에 뒀는데 자기집앞 지저분해진다고 계속 치우라고 해서 결국 집에 왔다가 담날 새벽에 청소차 지나갈 때 내놨어. ◆이주민 N

어르신들은 집앞에 뭔가 너저분하게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어르신이 계시는 집은 집 안팎이 매우 깨끗하다. 만가대의 골목골목을 돌아보면 알지만 어딜가도 쓰레기 하나 없이 동네가 매우 깨끗하다

거기가면 누구라도 있어

—소통과 만남의 장소

어르신들이 주로 가시는 곳은 노인정과 용호슈퍼이다. 노인정은 주로 남자어르신들이 많이가시고 용호슈퍼는 여자어르신들이 주로 가신다. 노인정은 어린이집과 붙어 있어서 바깥에 나와서 담배를 필수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가끔 실내에서 담배를 피워서 그런가 여자어르신들은 잘 가지 않으신다. 여자 어르신들은 주로 용호슈퍼에서 오고가며 인사를 하기도 하고 작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야채를 다듬으신다.

용호슈퍼

용호슈퍼앞에는 오전에 야채를 따와서 점심 즈음부터 채소를 다듬고 오후에 판다. 동네분들은 슈퍼앞을 지나가면서 계신분들에게 안부를 묻는다. 누구네가 어디로 이사갔는지, 왔는지, 누구네가 뭘 샀는지, 팔았는지, 누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지, 병원 다녀온 것은 어땠는지.. 용호슈퍼는 마을의 정보가 교환되는 소통창구다.

아줌마, 오늘은 국수 안취? 나 국수먹으러 왔는데. 아줌마 아파서 이제 나와서 할라하네. / 커피줄까. 오늘은 바빠서 커피 먹는것도 까먹었네. ◆손님과 사장님

고구마 줄기까는거 재밌어 보이네요? 저도 한번 까볼까요? 까는게 생각보다 재밌네. ◆어르신 J

(지나가는 할아버지)○○오빠~ 더워죽겠으니깐 나 맥주한잔 사주고 가. / (할아버지)그러~

용호슈퍼는 카드도 안되고 포스기도 없다. 어떤 과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것도 있고 편의점에서 보기 힘든 고무줄, 파리채, 끈끈이, 양초랑 성냥같은 물건들도 판다. 사장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귀도 잘 안들리시고, 허리도 아프시지만 계산은 암산으로 정확하게 해내시고, 정초에는 동네분들에게 떡국을 끓여주실정도로 큰손이라 한다. 용호슈퍼는 코로나로 문을 닫은 노인정을 대신해서 마을의 활발한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용호슈퍼에는 물건이 많지 않지만, 사장님도 주민들도 물건의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 허리도 다리도 편찮으신 사장님은 주문만하면 도토리묵도 나물무침도 똑딱 만들어 주신다.

노인정

작년에도 올해에도 내내 노인정은 닫혀 있고 특별한 회의나 모임시에만 연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백신접종률이 높아도 노인정에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 노인정 이용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

노인정에 뭐 특별한 프로그램 같은거 굳이 필요 없어. 여기와서 라면도 끓여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화투도 치고 하는게 재미지는 거지. 밥해주는 아줌마도 있어.

◆어르신 A

노인정에 나오는 사람이 없어. 동네에 노인들이 별로 없더니깐. 거기가 좀 불편하기도 하고. 코로나 전에도 그리 많이 가진 않았어. 한달에 한 번 밥이나 먹으러 갈까. 뭐 노인네들 담배피고, 노름하고. 그거 싫은 사람은 안가. 노래방기제도 없어. ◆어르신 H

노인정이 어린이집이랑 붙어있어서 불편하지. 행동도 조심스럽고. 원래 여기가 마을땅인데 시에 기부하면서 어린이집 짓고 한구렁이에 노인정 지어준거야. 근데 애기들 때문에 밖에 나가서 담배도 못피고. 답답하지. ◆자녀그룹 M

노인정은 여자어르신과 남자어르신이 쓸수 있는 공간의 구분이 없었다, 그것은 여자 어르신들은 거의 이용을 안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노인정에 있으면 마치 1980년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집기와 시설이 레트로하다. 노인회 간부도 수년째 변동이 없으신거 보니 그리 활발히 운영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르신들은 노인정에서 화투나, 마작을 주로 하시고 라면도 끓여드시고 소주도 드신다. 가끔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가 밥도 해주신다고 한다.

길 건너면 웬만한 병원이 다있지

:병원가기, 소소한 운동(텃밭, 산책)

병원에 대한 어려움은 없어 보였다. 의정부에는 대학병원이 세 개가 있다. 어르신들은 길 건너 용현동에도 내과 차과 정형외과 등 병원이 많고 송산1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보건지도 소도 생길 예정이라 병원에 대한 갈증은 없다. 병원에 갈 때 택시를 불러서 가는 어르신들도 더러 계신다.

수락산이 가까이 있지만, 산중턱까지 가려면 계곡줄기라 돌이 많고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쉽게 오르기 어려운 코스다. 그래도 몇몇 어르신 분들은 매일 산에 다녀오시고, 텃밭을 돌보면서 건강을 지키고 계셨다. 노인정 앞에는 어르신들의 운동을 위해 운동기구가 있다. 그러나 그 운동기구는 근력을 많이 쓰는 운동기구라서 어르신들이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이용하는 어르신이 안계셨다. 어르신들이 이용할수 있는 적합한 운동기구가 필요하다. 게다가 바닥이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라 잘못이용하여 낙상이라도 하시면 위험할 것 같다.

내가아직 요양원 갈때는 아니지

:TV보기, 종교활동과 마음넓게 쓰기

어르신들은 TV를 많이 틀어 놓는다. 그 이유는 정보에 있어서 뒤쳐져서 소외됨을 예방하는 것과 적막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소리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가 대화를 하다 의견이 안맞어 싸우느니 TV와 얘기하는게 낫다는 어르신들도 있다. 백신을 다 맞으셨지만 TV를 열심히 보시고 코로나 확진자 상황에 대해 뉴스를 경청하고 늘 몇 명이 늘었는지 말씀을 하신다. 집에서는 3명이상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2명이상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이신다. 옹호슈퍼에 있다가 손님들이 머물게 되면 알아서 자리를 피하신다.

또한 동네 요양원에 계신 노인들을 보며, 아직 자신은 요양원 갈때는 아니라고 위로를 하기도 한다. 만가대에는 대형교회 2개와 원불교, 수락사가 있다. 교회는 크지만 마을에 교인이 거의 없다. 동네 어르신들중에는 무교나 불교가 많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거의 없다. 종교생활보다는 동네분들과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넓게 쓰는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다.

2.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시려면 마을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르신들에게 마을은 공간이기도 하고 관계이기도 하다. 공동체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마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체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개인적인 욕구를 여쭙봐도 마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셨다.

마을의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이곳에서 나고 자란 어르신들이나 이주해왔지만 오랫동안 거주하신 어르신들은 자신과 마을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크다. 지금은 많이 희미해 졌지만 만가대는 박씨의 집성촌이라 가계에 의한 공동체성이 높고 이것이 마을문화로 이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수 있는냐에는 질문에는 마을의 발전이 나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말씀해주신 마을의 발전에 대한 의미는 어르신들마다 조금씩달랐지만 대체로 아파트가 들어설게 아니라면 땅값이 오르고 주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와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살아가는 것이었다.

창고랑 공장들이 다 지어져서 사람이 살곳이 없어. 빌라라도 많이 지어야 사람이 살지. ◆어르신 B

아파트가 뭐가 좋아. 아래층에 나쁜사람 만나면 맨날 싸우고. 텔레비전도 크게 못틀어놓지, 피아노도 못치지, 우리애들 피아노도 다 우리집으로 가져왔어. 의자도 못끌지, 발자국소리 난다고 하지. 어떻게 살아. ◆어르신 F

내가 우리마을에 사는 이유는 창고, 요양원이 들어가고 발전가능성이 없어도 제일 마음이 편한곳이기 때문이야. 여기에는 친구들도 있고, 공기도 좋고. 인심 좋고. 내집이 있으니깐. ◆어르신 G

주거는 교통과 편의시설의 조건이 맞아야 이사를 올 수 있는데, 만가대의 유일한 편의시설인 용호슈퍼는 젊은 주민들이 찾을 만한 물건들이 거의 없어서 용현동으로 사러나가야 한다. 동네어르신들은 용현동까지를 한동네로 보시기 때문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고 하시지만, 이주민들은 다른 동네로 물건을 사러 나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시에서 계획되어 있는 공원부지

여긴 섬 같아

: 마을에 들어오는 길, 용현동 나가는 길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속에서 도로의 계획과 추진은 마을 사람들의 존재를 중요하지 않게 본 것이 분명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만가대의 입구는 찾기가 힘들고 특히 차로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다. 자연업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만가대에서 유명했던 보리밥집, 칼국수 집이 망한 이유는 만가대를 지나가는 자동차전용도로로 길이 나면서라고 하신다. 차들이 네비를 찍지만 동네로 들어오는 길을 못찾아서 새로운 길가에 있는 음식점만 성황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가게를 접은 내막에는 여러 정황이 있겠지만, 새로 길이 나면서 손님이 줄어드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다.

차길이 하나였을때는 시내가고 용현동가고 괜찮았는데, 지금은 서너개씩 되니까. 길을 건널때마다 힘들어. 다리아픈이는 택시타고 가는데. 텔레비전에서 어느 동네는 천원만내면 데려다 주는데가 있다고 하더라고. ◆어르신 E

여기는 섬 같아. 사람들도 많이 살지 않지만, 어디를 갈래도 길을 여러번 건너야 하고. 동네가 이어져 있질 않아. 그래서 밤이 되면 더욱 조용하고 적막한거 같아. ◆어르신 J

요양원과 창고는 그만 들어왔으면

: 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3년전부터 우후죽순 들어온 창고와 공장은 고도제한으로 단층집밖에 없던 마을의 풍경을 바꿔버렸다. 뿐만아니라 물품의 상하차로 트럭, 지게차가 동네의 골목을 다닌다. 거주민보다 더 많은 창고와 자재들, 트럭 속에서, 자연적인 것들과 함께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 인간으로서의 본원적인 자유와 아름다웠던 동네로서의 자부심은 자꾸 훼손되어 갔다. 어르신들이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여기 세워진 많은 창고중에서 주차장있는 집이 딱 한 집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길에다가 차세워놓고 지게차 갖고와서 짐내리고 뭐래 그러니까 한번만 뜨고 얼른 가는것도 아니고. ◆어르신 D

외지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뭔가를 막 짓는것은 3년전 부터인데, 요양원도 들어왔지만, 꿈틀이 들어오면서 축구교실도 들어오고 다 생긴거야. 요양원도 처음에 마을 끝 저쪽에 생길때는 괜찮더니만. ◆자녀 그룹 M

옛날에는 사진이 귀해서 찍은게 거의 없지만, 지금은 창고랑 공장 때문에 동네에서 사진을 찍을데가 없어요. 그래서 안찍어요. ◆자녀그룹 L

현재 이 작은 마을에 요양원은 총5개가 있다. 요양원에서 한발자국도 못나오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당신은 집에 있으니깐 자유롭고 그래도 낫다고 스스로 위로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로원에 가는 한밤에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놀라서 깨게 되고 그러면 불안한 마음도 들고 다시 잠이 들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양원에 얘기해서 한밤중에 올때는 사이렌소리를 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

저 노인네들이 아프다든지, 병원 간다든지 하면 병원차가 한밤중에 요란스럽게 난리를 쳐서 처음엔 놀라기도 했어. 잠을 다 깨워놔. 그런거 만들기 전에 물어봤어 야지. 다 만들고 나서 이제서 뭐 어쩌자고. ◆어르신 H

바깥에 누구나 쉴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동네를 한바퀴 돌아보면 어디 가다가 앉을 곳은 딱 두 군데이다. 하나는 노인정 앞, 운동기구옆에 있는 벤치인데 사방이 트여있어서 하루종일 햇볕이 내리쬐거나 비가 오면 비를 맞는다. 다른 하나는 용호슈퍼 간이테이블과 의자이다. 동네를 산책할 수 있는 코스에는 벤치하나 없다. 어르신들은 노인정 말고, 탁 트여진 바깥에서 시원한 그늘같은데서 계시고 싶다고 하셨다.

옛날에는 계곡에 물이 철철 내려갔어. 물이 아주 좋았거든. 빨래하고 남자들 목욕하고. 이맘때 동네사람들 피서도 가고 아이들 물놀이 많이 했지. 근데 지금은 안 내려와. 저 위에서 물을 막았대. ◆어르신 H

자꾸 가정집 팔아서 마을안쪽으로 요양원이 생기고. 집과 집사이에 있던 마을 공터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나와도 어디 앉을데가 없어. ◆어르신 C

요양원들어와서 쉴수 있는 공터도 없어졌지만, 요양원 노인네 들도 어디 가지 못하게 딱 한자리만 앉혀놓고. 저기 원불교있는데 끄트머리 있으면 노인네들 나무같은거도 보고 좀 앉아 있을수 있고 하면 좋잖아. 동네 한가운데 만들어놓고 노인네들 나오지도 못해. 쉼터같은거 만들어 놓지도 않고. ◆어르신 G

요양원에 자식들이 면회도 많이 안와. 건물안에만 있어야 하니깐 숨막켜서 오지도 않을거야. ◆어르신 J

단독은 우풍은 없어도 얼마나 손볼 곳이 많은지

이주민이 이사오면서 새로 지은 신축단독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3-40년된 노후된 주택에 사신다. 기사를 부르기에는 좀 아쉬운 전기, 수도, 보일러 같은 경정비는 자식이 같이 살지 않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없다. 어르신들은 어렵게 살아온게 익숙해서 고장나거나 망가져도 방치하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많다.

집에 우풍은 없는데, 단독은 얼마나 손볼 곳이 많은지, 옛날부터 우리 영감 죽으면 나는 아파트로 간다 그랬어. ◆어르신 F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해보면 1) 사람이 살만한 동네였으면 좋겠다는 것과 ① 마을이 발전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고 ② 마을에 들어오는 길이 제대로 정비되기를 바라며 ③ 요양원과 창고는 그만 들어오고 주택이 많아지고 ④바깥에 누구나 설 수 있는 공원(조성) 2) 노령으로 인해 힘에 부치는 생활적인 일들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⑤ 노후주택관리에 대한 어려움)는 의견이다. 전쟁이후의 척박한 삶을 일구고 권위주위 정부 시대를 사셨던 어르신들께서는 정치인이나 시장이 공장과 창고를 못 짓게 하고 도로를 다시 정비했으면 하는 법이나 정책을 조속히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내비치셨다. 그러나 행정은 의지의 문제도 있지만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꾸준한 관의 설득과 주민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환경과 공간은 인간의 정서와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공장과 창고가 지어진 만큼 주민들이 설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늘어나야 한다. 만가대에 대한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만가대는 두 개의 공원부지가 있다. 이 공원부지에 공원이 언제 들어설 것인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3. 어르신들 바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의 자녀들과 주민분들 이야기)

어르신들의 바람을 정리하여 자녀분들과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녀분들이나 주민분들은 어르신들보다는 마을에 대해 객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 공장과 창고는 사유재산이니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이미 생겼으니 잘 활용할 방안에 대한 모색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무엇이 더 바뀌거나 달라지는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서로 좋은 관계로 잘 지내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공원이 생기면 우리동네가

그렇게 후져보이지는 않을거예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데에는 여러이유가 있지만, 쾌적한 환경정비가 무엇보다도 잘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가대 마을에 공원이 생긴다면 주민들의 쉼터 뿐만아니라 소통장소로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미 지어진 시설을 허물수 없으니 상상력을 동원해 활용하여 현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마을의 가치를 높일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점은 한세대가 젊은 분들이라 가능한 것 같다.

우리마을에 공원부지가 두 개 있어요. 그런데 수 년째 미뤄지고 있는거지. 어르신들 말씀대로 개울 따라서 공원이 생기면 우리동네가 그렇게 후져보이지는 않을거예요. ◆이주민 N

어차피 생긴 요양원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우리동네를 노인친화동네로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동네에 있는 게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원이잖아요. 서울하고도 가깝고 이렇게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 노인 상담소, 노인카페, 노인전문 운동센터, 어르신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설이 생긴다면 마을에 더 활기도 생길 거 같아요. 그럼 길에 차는 많이 없어져야지. ◆이주민 N

창고나 공장이나 다 사유재산인데 나가라 말라 할 수는 없지요. 이미 다 들어섰고. 그렇지만 동네에 시커멓게 있는 창고와 공장을 보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건물 외벽에 예쁜 벽화나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으면 어르신들 정서에도 좋을거 같아요. ◆자녀그룹 L

뭐가 생기는것보다 마을의 화합이 중요하죠

조직이나 마을에서는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마을에서 나고 자란 자녀그룹들은 어려서부터 마을의 행사들을 보고 자랐고 어르신들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마을의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어르신간에 작은 갈등이 있으면 자녀분들이 해결하기 위해 마음을 쓴다. 뿐만아니라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주민들이나 시설들에 대해 무조건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관계성을 갖고 마을에 기여를 한다면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으로 받아들여지고 마을의 변화를 가져오고 싶은 분들도 힘이 날 것이다.

뭐가 생기는것보다 마을의 화합이 더 중요한거 같아요. 어르신들 사이에 있는 작은 갈등이 생기면 해결하기가 무척 어려워요. 이런 것들을 잘 살피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마을행사도 못여니까. 코로나가 끝나기를 바래야 겠죠. ◆자녀그룹 M

다른데는 공장짓고 건물을 올려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동네가 발전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거기 대안학교는 인사도 하고 동네서 뭐라도 하려고 하나씩 좀 다르긴 하지. ◆어르신 A

원불교랑 호산나교회랑 이동네 온지는 오래 되었는데. 옛날에는 마을행사하면 그래도 얼굴을 보기는 했던 거 같은데 요즘에는 통 모르겠네. ◆어르신 D

시설의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 노인정, 운동기구, 마을회관

만가대의 노인정은 어린이집과 함께 있어서 어르신들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20년 전에 지어져서 지금의 생활방식에 맞는 공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좀 더 밝고, 다양한 어르신들이 편히 계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연구와 공간구성이 필요하다.

노인정 있는 자리가 원래 마을땅이에요. 20년 전에 마을 어른들이 그 땅을 시에 기부를 하고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노인정을 지었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특히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어르신들은 화장실이 널찍해야 하는데. 그리고 같이 밥을 먹으려면 부엌도 좀 넓어야 하는데, 부엌도 좁아요. 그때 결정하신 어르신들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정과 어린이집이 분리가 되고 좀 더 좋은 시설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그룹 M

어르신 손과 발이 되어줄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나물을 다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못질, 망치질 같은 경정비나 의자에 올라서 뭔가를 내리거나 올리는 것도 겁나고 힘들다. 뿐만아니라 요즘은 가게를 가면 자동화가 된 키오스크도 많다. 기계 앞에서는 무한히 위축되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릴수 있는 세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용호수 퍼갈은 가게를 훨씬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용현동이 가까워도 자동차전용도로와 이어진 4차선 도로를 두 번이나 건너고 8차선 도로를 건너야 갈수 있다. 보행속도도 느리고 무릎수술하신 어르신들은 신호등 안에 길을 건너기가 힘들다.

어르신들에게는 용현동이 거의 한동네예요. 만가대는 시골집이고 용현동은 읍내같은 개념인거죠. 늘 걸어 다니던 한동네였지만,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는 찾길을 건너고 다니기가 힘들어서 아예 안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꼭 나가야할 때 이동수단을 도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그룹 M

어르신들이 만가대에서 좋은 삶을 살기 위한 바램과 대안의 모색

이미 생겨난 것을 없애기란 매우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는한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수도 없다. 그래서 주민분들과 인터뷰를 하며 나온 아이디어를 첨가해 어르신들의 바램을 정리해 보았다. 어르신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하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직접적인 시설과 공간에 대한 정비, 생기넘치고 활력있는 마을이 되기위한 방안, 마을에 진입이 쉽도록 조정된 도로와 주차문제, 더 이상 요양원과 창고, 공장이 지어지지 않고 이미 지어진 시설들은 마을에 기여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것도 좋을 것 같다.

- ①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조성, 노인정 독립과 리모델링
- ② 마을 활성화 방안: 사람들이 많이 이사를 올수 있도록 주택활성화, 노인친화마을 등 방안 모색
- ③ 주차문제, 마을길에 다니는 트럭문제 해결, 어르신들이 차길 건널 때 신호를 길게 주기
- ④ 요양원과 창고, 각 시설들이 마을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 찾아보기
- ⑤ 노후한 주택문제에 도움을 줄수 있는 관리소

결론 및 제언

오전 8시 반부터 9시까지, 만가대에 유동인구와 차가 가장 많은 시간이다. 그 시간에는 용현 어린이집 버스가 들어오는 시간이고, 꿈틀자유학교 아이들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시간이며, 5개나 되는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가 교대하는 시간이며, 물건을 실으러 트럭들이 들어오는 시간이다.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가 나란히 지나갈 수 없어서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작은 마을길에, 비록 가건물이지만 집앞에 꽃화분을 갖다놓고 물을 주는 마을 주민이 보인다.

요양원이 하나둘 더 생기고, 창고가 계속 들어서면서 마을은 풍경은 시꺼매지고 삭막해져 갔다. 이젠 마을에 들어서면 입구에 있는 낡은 중고가전의 인사를 시작으로 큰 건물과 큰 트럭이 만 보이고 작은 집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며가며 인사드렸던 어르신들이 마을길에서 큰짐을 싣고 달리는 트럭과 차로 위협하겠다는 생각,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 편의점 하나 없는 동네에서 뭐하나 사려면 길을 세 번이나 건너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동네로 이사온 꿈틀자유학교가 이 동네에서 주민으로 참여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어서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다.

연구를 계획할 당시에는 수월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진행되면서는 의견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원주민에 입장에서는 시청에서 나온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이 조사하는 것도 아니라서 말하면 무엇하리... 라는 생각과, 공식이던 비공식이던 어쨌든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로 인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나마 여러차례 만나뵙기 위해 지나가다 그냥 들려서 인사하고, 뜬금없이 자주 찾아가면서 만남의 횟수를 늘리자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다. 그나마도 꿈틀자유학교가 이 동네에 이사를 왔고 동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셔서 말씀해주신 것은 아닐까 싶다.

어르신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그래야 마을에 활기가 생기는데 제발 공장이나 창고, 요양원 같은 시설을 그만 짓고 아파트가 아니라면 빌라라도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상업시설들도 생기고 사람사는 동네갈기 때문이다.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을 때의 기억을 갖고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공장이나 요양원같은 시설이 자꾸 들어서는 이유가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취

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 여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만가대 마을에서 야외에 어르신들이 앉을 수 있는 곳은 딱 두 군데이다. 하나는 노인정 앞 그늘없는 벤치의자와 용호슈퍼에 있는 의자이다. 산책을 할 만한 동네의 외곽길에는 새로 포장되어서 가로수가 아직 그늘을 만들어 주지 못하고 어디 앉아서 쉴 곳도 없다. 도시계획으로 있는 공원조성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건다가 쉴 수 있도록 마을 곳곳에 벤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거의 사유지라 세울 곳이 마땅히 없기도 하다. 이럴 때 노인정과 가깝고 마을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호산나교회같은 종교시설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를 한쪽에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면 좋겠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먹을데 없는 편의점도 없는 동네에 대한 불편은 원주민들은 거의 갖지 않았다. 물론 어르신들이라서 그럴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용호슈퍼에는 너무 물건이 없고, 오래되어 보였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곳도 용호슈퍼였다.

용호슈퍼에 앉아 있으면 평균 시간당 7-8명의 동네분들을 만날 수 있다. 그냥 지나치는 마을분도 계시지만 꼭 인사는 하고 지나가신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1개 밖에 없는 간이테이블에 앉아서 음료를 드시고 담소를 나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췄지만, 용호슈퍼는 멈추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의 실질적인 마을 커뮤니티의 기능을 용호슈퍼에서 하고 있는데, 용호슈퍼에서는 각종 정보의 교류, 자발적인 참여의 노동과 소득활동, 이해 당사자의 연결, 마을 행사 대행(설날 떡국 같이 먹기), 적절한 집단상담등 다양한 기능을 주민들이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 중심에는 마을에 웬만한 분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장님이 계신다. 역시 마을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소중한 용호슈퍼가 더 잘 번창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물리모델링이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공격지원이 있으면 어떨까요? 하고 말씀드려봤는데, 사장님은 지금도 불편함이 없다고 하시고 용호슈퍼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용호슈퍼를 불편해 한건 나와 같은 외지인이다. 나와 같은 시선으로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가 진행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다. 용호슈퍼가 오래도록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장님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만가대에 어르신들이 많고 요양원이 많은 특징을 살려서 노인친화마을을 만드는 것은 어르신들보다는 주민들에게서 더 많이 제시되었다. 노인을 위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마을주민의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어서 마을에 활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뭐가 더 많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 외지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도 싫고, 생활편의시설은 용현동에서 해결을 하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마을사람들과 잘 지내고 농사지으면서 살고 싶어하신다. 이런 어르신들의 바람을 살리면서 마을에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마을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마을회의 집행부는 좀 더 실무력이 있는 젊은 60대 어르신들로 구성되면 훨씬 추진력 있게 진행이 될거 같다. 현재에는 마을에는 청년회는 없어졌고, 70대 어르신들께서 마을회와 노인회, 부녀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 분들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힘이 들어서 손을 뉘버리면 마을은 멈추게 된다. 그래서 차기에는 마을을 잘 이해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줄 수 있는 좀 더 젊은 분들이 마을회를 이끌면 어떨까 싶다. 지금도 어르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일들을 누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것도 있다. 그러나 마을차원에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고 마을회집행부에서 각 마을의 자치기관들을 살려내고 따뜻하게 내려 오는 전통을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자녀세대그룹에서 마을의 직분을 맡으시면 좋을 것이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연구를 정리하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외지인의 생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떠날 사람들은 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떠오른 키워드가 있다면 ‘만남’ 과 ‘관계’이다. 연구를 하면서 용호슈퍼에 대한 인상이 강하게 남았다. 용호슈퍼의 역할은 관이나 정책으로 절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가대에 용호슈퍼가 없었다면 동네의 커뮤니티는 훨씬 더 약화가 되었을 것이다. 어르신들과 주민들과 나눈 이야기들의 절반도 넘게 이 보고서에 실을 수 없었지만, 그 이야기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성큼 마을속으로 들어간 느낌이다. 비록 만가대 어르신들이 이 마을은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마을에 대한 애정이 깊고 변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기도의 지자체들은 도농복합도시도 많고 신도시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도 매우 많다. 그중 의정부는 신도시라고는 볼수는 없지만, 이렇게 작은 동네도 택지개발과 계획없는 개발들로 인해 살아왔던 터전에서 삶을 위협을 받거나 포

기하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다. 꿈틀자유학교도 다른 공장이나 요양원처럼 다른곳보다 땅값이 저렴해서 이사를 갈수 있었지만 동네를 우중충하게 만들고 혐오하는 시설이 아닌 동네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된다면 모두의 삶에 좋을 것이다.

의정부에도 아파트 개발로 자연부락이 두어개 남았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만가대이다. 나고자라 한 동네에서 70년, 80년을 사신 어르신들이 이 동네에서 30년을 미군 때문에 군사기지로,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개발이 풀리니 마을사람들이 갈라지고 요양원, 공장과 창고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은 얼마나 좌절했을까. 우리의 연구가 마을에서 어르신들의 바람을 기반으로 다시 따뜻한 마을을 되찾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마을 만가대의 발전이다.

【참고문헌】

김종만 <사격장 아이들> 2010 보리출판사.

<의정부시의회 1993년 회의록> . 의정부시의회 .

<의정부시 30년사> . 1994 시정30년사편찬위원회 .

김한호. “노년기 생활공간의 경험과 의미.”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대학교. 2011. 서울.

서유진. “도시재생에 있어 Aging in Place를 위한 고령자 서비스 주거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황은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욕구에 관한 질적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20.

2021 작은연구

아는 것을 넘어서는 통찰과 상상력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5번길 8-7, 201

디자인 플랜포히어

홈페이지 ggmaeul.or.kr

페이스북 @ggmaeulcenter

유튜브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문의 031.852.2299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Overight-Box Community Support Center